주식전략

변동성의 세상에서 살아남기(2)

주식전략 이상연
T.02)2004-9045
lee.sang-yeon@shinyoung.com

분석의 기본 가정

- 반도체 업종의 외국인 지분율은 이미 낮아진 상황, 중요한 것은 업황 투자 심리 개선
- 7월 FOMC를 기점으로 국제유가 상승 및 미 통화정책 향방에 대한 우려 완화 기대

외국인 순매수에 대한 생각

외국인 수급은 예측하기 어렵다. 국내 기업 실적이나 밸류에이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위험선호, 달러·원 환율,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 리밸런싱, 패시브 자금의 기계적 집행 등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대외 변수가 복합적으로 얽혀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한 가지 패턴은 지수 낙폭이 과도해지면 외국인 수급이 선물을 시작으로 되돌아온다는 점이다. 즉, 그들의 재유입의 정확한 시점은 예측할 수 없어도 외국인이 하방을 받쳐주는 흐름이 지속되면 신뢰할만한 과매도구간에 진입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두를 불안하게 하는 유가와 채권금리

미국-이란 간의 휴전 MOU 체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 불신 발언, 전쟁 개전 이래 최초 미군 사망, 후티반군의 선반 공격 등 최근 중동 리스크 재확산 조짐을 보이며 국제 유가가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다만 여기서 핵심은 현실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도 유가를 더 끌어올리는 것을 용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유가를 눌러줄 정책 카드인 전략비축유(SPR)를 이미 과도하게 소진했다. 현재 SPR은 약 3.11억 배럴로 1983년 4월 이후 43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 둘째, 11월 중간선거가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 시점의 유가 및 주유비 급등은 여당에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다. 이에 향후 국제유가는 추세적 급등보다는 이벤트성 변동에 무게를 두는 접근이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한편, 유가가 반등하며 시장 금리 또한 인플레이션 우려를 반영하며 재차 상승 중이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7/24 기준 4.69%로 최근 2개월래 고점 부근이며 이는 한 달 새 약 30bp가 오른 수치이다. 6월 CPI가 예상보다 둔화되며 잠시 되밀렸던 금리가 유가 반등을 계기로 다시 상승 방향을 잡았는데, 이는 '유가 상승 → 인플레 재점화 우려 → 금리 상승'의 연결고리가 재가동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7월 28~29일 FOMC다. 다만 과거 증시가 추세적으로 꺾이는 계기는 '금리 인상 그 자체'가 아니었다. 결국 주식이 싫어하는 것은 금리 인상 자체가 아니라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다. 따라서 이번 FOMC와 향후에도 주요 관전 포인트는 동결 여부보다는 워시 의장의 새로운 소통 방식에 시장 참여자들이 빠르게 적응하는지 아니면 매파적 톤과 함께 오히려 불확실성이 확대되는지다.

외국인 수급에 대한 생각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외국인 수급

외국인 수급은 예측하기 어렵다. 국내 기업 실적이나 밸류에이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위험선호, 달러·원 환율,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 리밸런싱, 패시브 자금의 기계적 집행 등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대외 변수가 복합적으로 얽혀 움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 수급으로 지수 방향을 예단하기보다는 현재의 주가 지수, 밸류에이션, 환율 레벨 등을 근거로 '단기 저가매수가 유입될 만한 구간인가'를 가늠하는 정도가 현실적인 접근이다.

외국인의 선물 수급을 과매도 판단 시그널로 활용할 수는 있음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한 가지 패턴은 지수 낙폭이 과도해지면 외국인 수급이 선물을 시작으로 되돌아온다는 점이다. 실제로 5월 이후 외국인은 현·선물 양방향에서 순매도 우위를 이어왔고 선물 누적 순매도는 한때 -22조원 부근까지 확대됐으나, 낙폭이 깊어진 국면에서 어김없이 되돌림이 나타나며 최근 -13조원대로 절반 이상 축소됐다. 현물에서도 7월 들어 월간 순매도폭이 축소되는 흐름이다. 즉, 그들의 재유입의 정확한 시점은 예측할 수 없어도 외국인이 하방을 받쳐주는 흐름이 지속되면 신뢰할만한 과매도구간에 진입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국인 지분율은 5년 평균을 하회 중

구조적으로도 추가 유입 여력은 열려 있다. 코스피 전체 외국인 지분율은 40%대 초반(40.2%)에 머물러 있고, 시장을 대표하는 삼성전자(46.8%)와 SK하이닉스(52.6%)의 외국인 지분율 역시 이미 10년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10년 평균(51.1%)은 물론 5년 평균(51.7%)까지 모두 밑돌아, 현재 지분율이 과거 평균 대비 4~5%p가량 낮은 상태다. SK하이닉스도 현재 52.6%로 5년 평균(53.1%)을 소폭 하회 중이다. 즉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외국인 보유 비중의 하회폭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 확인된다. 과거 두 종목의 외국인 비중이 55~57%까지 높아졌던 국면과 단순 비교하더라도, 지금의 낮아진 보유 비중 자체가 되돌림 매수를 위한 공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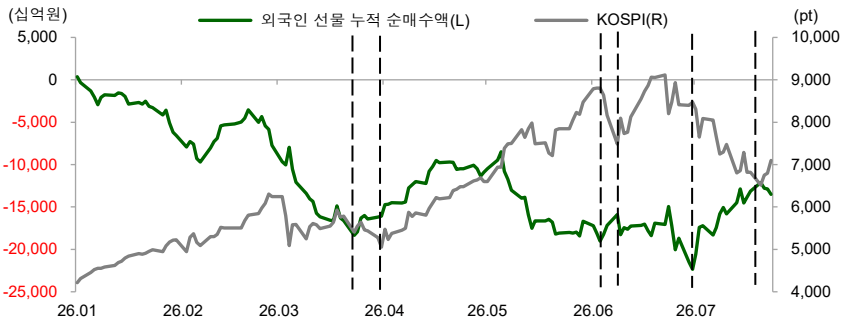
낮아진 외국인 지분율과 함께 업황 개선에 대한 확신이 형성된다면 구조적인 수급 변화 기대 가능 구간

물론 낮아진 지분율 자체가 곧바로 매수를 유발하는 트리거는 아니다. 외국인의 재유입에는 결국 방향성에 대한 확신, 즉 반도체 업황이 다시 개선된다는 신호가 선행되어야 한다. AI 수요를 축으로 한 HBM및 범용메모리 업황의 반등 지속, DRAM 가격의 반등과 같은 시그널이 강하게 주어진다면 지금처럼 과거 평균을 크게 밑도는 보유 비중이 오히려 강한 순매수 탄력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반대로 업황 확신이 부재한 구간에서는 낮은 지분율이 그 자체로 상승 동력이 되기는 어렵다.

추세적 반등을 위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이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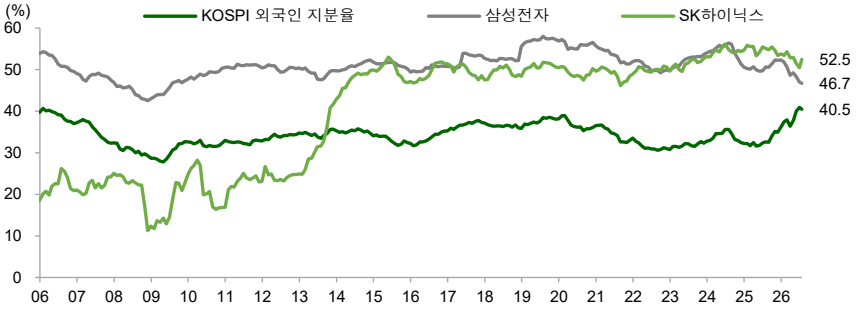
현재로서는 낮은 보유 비중이 최소한 '추가 매도 여력은 제한적'이라는 하방 방어 논리로는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이미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당 부분 비중을 덜어낸 만큼, 추가로 대규모 이탈이 나올 여지보다는 낙폭과대 국면에서 되돌림 매수가 유입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수급이 단순한 하방 완충을 넘어 추세적인 재유입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이번주 하이퍼스케일러와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을 통한 업황에 대한 시장의 신뢰 회복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도표 1. 연초 이후 외국인 선물 누적 순매수액 및 KOSPI 지수 추이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 KOSPI,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외국인 지분율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 투자주체별 7월 KOSPI 선현물 수급 추이

날짜	선물			현물			KOSPI 당일 수익률
	외국인	개인	기관	외국인	개인	기관	
2026-07-01	1,765	-589	-839	-1,703	1,737	-70	-2.0%
2026-07-02	3,205	-418	-2,751	-4,371	6,241	-2,083	-7.9%
2026-07-03	182	34	-404	-2,175	-2,294	4,408	5.8%
2026-07-06	-1,114	127	1,067	-1,314	2,683	-1,462	-0.5%
2026-07-07	882	136	-989	-2,917	3,136	-311	-4.9%
2026-07-08	1,634	284	-1,946	344	-36	-355	-5.3%
2026-07-09	746	206	-1,010	134	-1,328	1,288	0.6%
2026-07-10	-774	14	631	-323	-780	1,131	2.5%
2026-07-13	1,318	-2	-1,170	-1,671	3,887	-2,234	-8.9%
2026-07-14	1,630	-350	-1,289	957	-4,141	3,212	0.7%
2026-07-15	-1,664	315	1,208	2,303	-2,467	199	6.2%
2026-07-16	701	-344	-321	-1,367	3,665	-2,383	-6.4%
2026-07-20	1,011	53	-1,000	520	349	-923	-4.5%
2026-07-21	-679	-42	652	295	-1,642	1,374	3.6%
2026-07-22	-43	259	-228	2,621	-1,218	-1,396	0.7%
2026-07-23	-657	-225	865	2,136	-2,208	98	4.4%
2026-07-24	-76	91	-4	-3,268	5,178	-1,951	-5.7%

자료: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모두를 불안하게 하는 유가와 채권금리

5주만에 $80/bbl까지 상승한 WTI

미국-이란 간의 휴전 MOU 체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 불신 발언, 전쟁 개전 이래 최초 미군 사망, 후티 반군의 선반 공격 등 최근 중동 리스크 재확산 조짐을 보이며 국제 유가가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WTI 기준으로 약 5주만에 배럴당 80달러대까지 반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 또한 재차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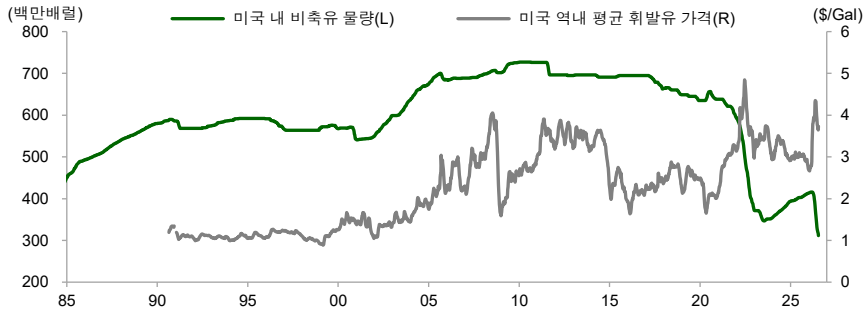
다만, 미국 입장에서도 국제유가 상승을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상황

다만 긍정적인 뉴스도 존재한다. 주중에는 카타르 도하 중재 하에 휴전 관련 제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되었고 미국과 이란 양측 모두 대화 채널이 열려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도 했다. 물론 아직까지 금융시장은 확전과 협상 재개 사이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현실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도 유가를 더 끌어올리는 것을 용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1)전략비축유(SPR) 소진, 2)100일 남짓 남은 중간선거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유가를 눌러줄 정책 카드인 전략비축유(SPR)를 이미 과도하게 소진했다. 현재 SPR은 약 3.11억 배럴로 1983년 4월 이후 43년 만의 최저 수준이며, 2009년 고점(7.27억 배럴)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 추가로 방출해 유가를 방어할 여력 자체가 얇아진 상태다. 둘째, 더 근본적인 문제는 역내 휘발유 가격의 상승 반전이다. 휘발유 가격은 미국 소비자 체감물가에 직결되는 대표 품목인데, 11월 중간선거가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 시점의 유가 및 주유비 급등은 여당에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다. 실제로 여당 내부에서도 유가 및 휘발유 가격을 중간선거의 핵심 리스크로 경계하는 기류가 확인된다. 종합하면 유가는 지정학 변수에 따른 상방 리스크를 열어두되 현재로서는 미국의 정책적 제어 유인이 강하게 작동하는 국면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향후 국제유가는 추세적 급등보다는 이벤트성 변동에 무게를 두는 접근이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도표 4. 줄어드는 미국 비축유, 올라오는 역내 휘발유 가격



자료 : EIA,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에 채권금리도 재차 상승

한편, 유가가 반등하며 시장 금리 또한 인플레이션 우려를 반영하며 재차 상승 중이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7/24 기준 4.69%로 최근 2개월래 고점 부근이며 이는 한 달 새 약 30bp가 오른 수치이다. 6월 CPI가 예상보다 둔화되며 잠시 되밀렸던 금리가 유가 반등을 계기로 다시 상승 방향을 잡았는데, 이는 '유가 상승 → 인플레 재점화 우려 → 금리 상승'의 연결고리가 재가동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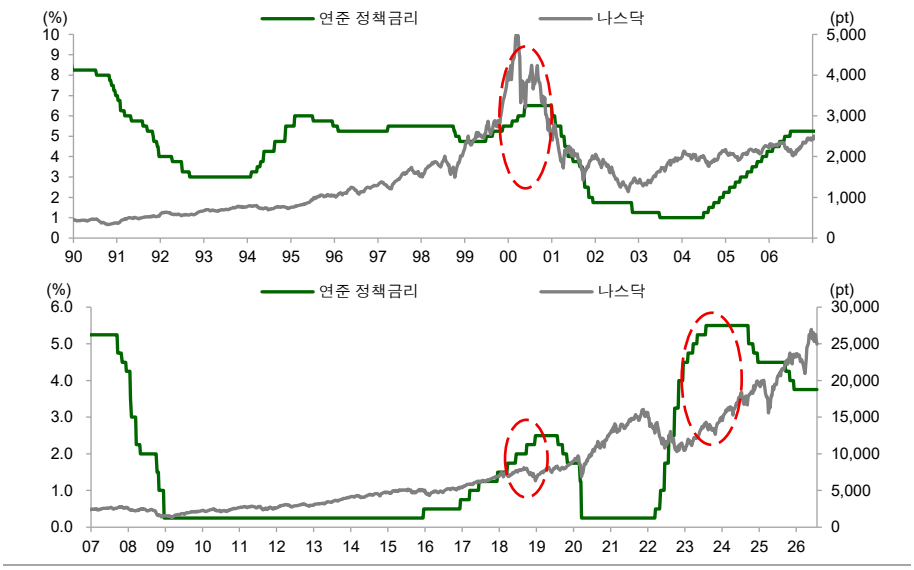
증시가 추세적으로 꺾이는 건 '금리 인상' 자체보다는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7월 28~29일 FOMC다.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다섯 차례 연속 금리 동결(현 정책금리 3.50~3.75%)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히 우세하지만, 최근 유가 급등으로 인상 확률이 빠르게 높아지며 시장의 경계심을 자극하고 있다. 다만 과거를 돌아보면 증시가 꺾이는 계기는 '금리 인상 그 자체'가 아니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국면에서도 주가가 함께 상승한 구간은 여러 차례 확인된다. 실제로 2016~2019년의 점진적 인상기나 2023~2024년 인상기에도 나스닥은 오히려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역사적으로 증시가 본격적으로 무너진 국면은 인상 자체보다 1)긴축이 뒤늦게 '과했다'고 인식되는 경우(2000년 닷컴버블, 2018년 말)이거나, 2)인상 시기 및 폭이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난 충격(2022년)이었다.

주식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통화정책 컨센서스 형성이 선행되어야

결국 주식이 싫어하는 것은 금리 인상 자체가 아니라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다.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경로가 예측 가능해지면 증시는 이를 충분히 소화해내지만, 지금처럼 뚜렷한 기준 시나리오 없이 유가·물가 같은 돌발 변수에 따라 인상 기대가 출렁이는 국면에서는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워시 의장의 새로운 소통 방식에 시장 참여자들이 빠르게 적응하는지 아니면 매파적 톤과 함께 오히려 불확실성이 확대되는지다. 전자라면 인상 부담에도 증시는 버틸 수 있지만 후자라면 '금리 레벨'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성'이 단기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표 5. 주식시장이 싫어하는 건 금리 인상 자체보다는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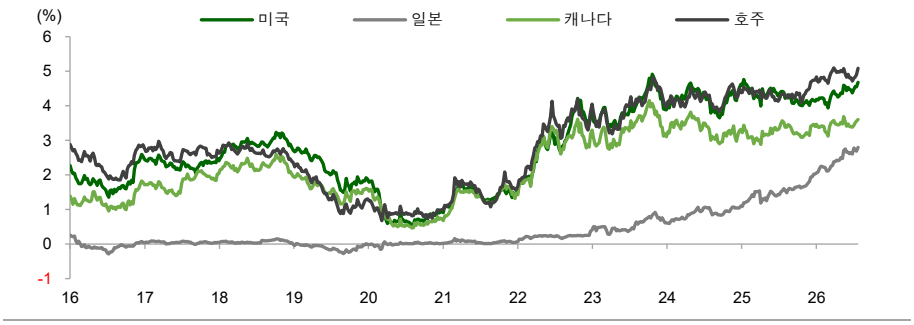
물론, 중장기 관점에서는 미국 외 국가의 금리 상승 지속이 불편한 사안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목할 점은 이번 금리 상승 압력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장기금리가 재정건전성 우려를 매개로 일제히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인플레이션과 재정 부담이 겹치며 30년물 JGB 금리가 4% 부근까지 올라 사실상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했고, 영국은 30년물 국채 금리가 5%대 후반으로 1998년 이후 최고치까지 상승하며 예산 및 증세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정치 불안과 GDP 대비 5% 안팎의 재정적자 문제로 국채 금리에 프리미엄이 얹힌 상태다. 주요국 10년물 금리는 중동 리스크 완화 후에도 여전히 위기 이전 대비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즉 지정학 리스크 외에도 이미 국방비 증가, 인구 고령화, 정부 이자비용 상승 등 구조적 재정 부담이 글로벌 장기금리의 하단을 끌어올리고 있었으며 이 흐름 속에서 미국 국채 금리도 간접적으로 함께 올라가는 구도임을 무시할 수 없다.

시장금리 상승은 AI 기업에게 1)할인율 상승, 2)자금조달비용 상승의 좋지 않은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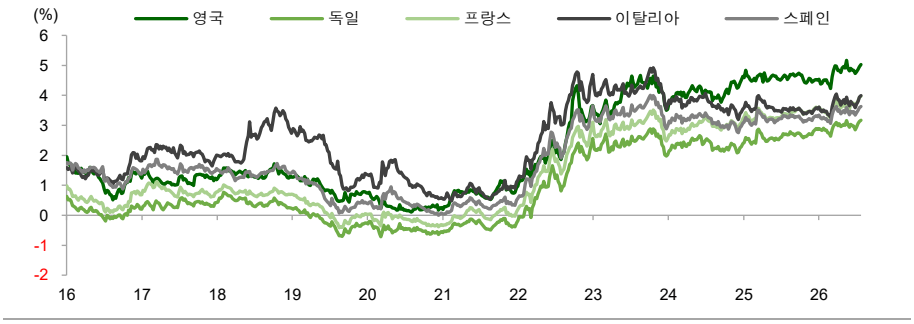
주식 입장에서 금리 상승은 기본적으로 할인율 상승을 통한 밸류에이션 훼손 요인으로 특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성장주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문제는 최근 금리 상승이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장은 이를 AI 인프라 투자 자금의 조달 비용 증가로도 인식하기 시작했다. 2026년 AI 관련 채권 발행 규모는 약 5,7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급증한 반면, 하이퍼스케일러 채권의 청약배수는 2월 약 5배에서 7월 2배 미만으로 빠르게 낮아졌다. 이는 발행사가 자금을 조달하려면 더 높은 금리를 얹어야 하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지금까지 지수를 주도해 온 성장주(AI 밸류체인)은 1)할인율(밸류에이션)과 2)자금조달비용 상승의 이중 타격에 노출된 셈이며 향후에도 주도 섹터일수록 금리 민감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도표 6. 주요 선진국(유럽 제외) 10년물 금리 추이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7. 주요 유럽국가 10년물 금리 추이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증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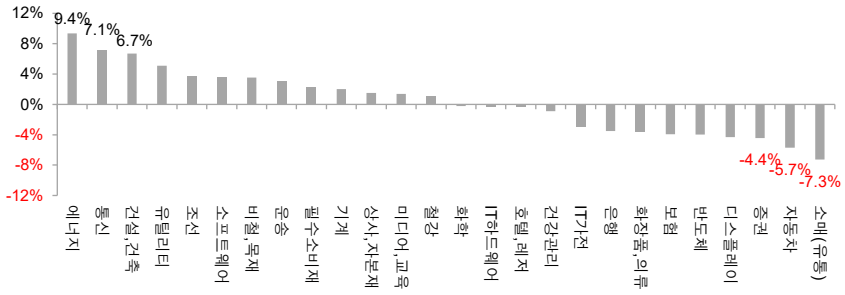
7/24 KOSPI 종가 6,690pt로 마무리, 주간 수익률 -1.9%

지난주 KOSPI는 6,690pt로 마감하며 주간 수익률 -1.9%를 기록했다. 알파벳 실적 발표를 통해 AI 수익성과 AI 인프라 투자 확대 기조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KOSPI는 추가 반등에 실패했다. 그럼에도 120일 이평선(6,600pt) 부근에서는 강한 지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주가지수 부진에도 KOSPI 전체 이익 모멘텀은 견조

한편 주가지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KOSPI 전체 이익 모멘텀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 반도체, IT하드웨어, IT가전과 같은 기술 업종 외에도 운송, 에너지, 화학 등의 경기 민감 업종의 추정치도 상향되고 있다. 이는 최근의 가파른 증시 조정에도 불구하고 기업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도표 8. 한국 증시 업종별 주간 수익률(~2026.07.24)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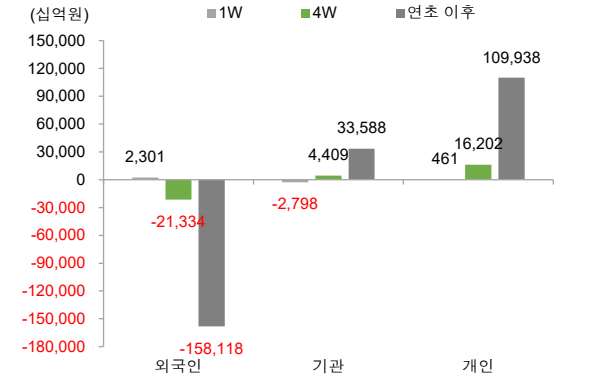
도표 9. 한국 주간 업종별 수익률 및 12MF EPS 추정치 변동 테이블(~2026.07.24)

	주간 수익률 (%)					12M fwd EPS 추정치 변동 (%MoM)				
	06.26	07.03	07.10	07.16	07.24	06.26	07.03	07.10	07.16	07.24
KOSPI	-7.1	-3.8	-7.6	-8.8	-1.9	8.6	10.9	11.2	10.6	7.2
KOSDAQ	-11.9	2.0	-3.6	-5.4	-5.5	2.9	3.6	3.8	4.1	3.5
에너지	-2.0	-3.2	-0.5	-3.0	9.4	12.5	10.1	10.2	11.9	7.1
화학	-16.7	1.6	-4.2	-3.2	-0.2	6.0	-1.5	1.4	3.4	6.2
비철목재	-11.8	5.9	-5.2	-1.9	3.6	1.8	3.8	4.7	2.8	2.2
철강	-14.6	4.9	-2.2	-0.8	1.1	0.3	0.7	-2.1	-3.2	-2.1
건설/건축	-14.0	9.9	-3.8	-8.0	6.7	8.1	1.3	0.3	-2.1	-0.2
기계	-18.3	7.6	-9.0	-7.9	2.0	3.1	3.2	3.1	2.6	3.2
조선	-17.5	4.8	-10.3	1.0	3.7	2.6	2.9	2.3	2.9	1.9
상사/자본재	-8.6	3.4	-9.6	-6.1	1.5	1.5	1.2	1.7	1.4	1.5
운송	-8.7	7.0	-0.8	-2.7	3.1	5.6	5.8	7.1	9.7	9.7
자동차	-18.6	5.1	-3.8	-3.2	-5.7	0.6	0.7	1.4	1.1	1.3
화장품/의류	-6.0	11.0	-1.8	2.6	-3.6	1.2	2.2	2.8	3.0	3.4
호텔/레저	-11.2	5.5	-0.7	-7.7	-0.4	2.9	1.1	1.0	1.6	-0.9
미디어/교육	-14.4	10.1	2.3	-4.9	1.4	1.9	0.9	2.6	2.5	2.3
유통	-3.1	0.5	-4.2	-4.4	-7.3	6.0	5.3	3.1	3.7	1.4
음식료/담배	-6.1	5.4	0.2	-0.7	2.3	1.2	0.8	0.7	0.8	1.2
헬스케어	-6.7	5.6	-6.2	-3.4	-0.9	2.0	1.4	1.7	1.9	1.2
은행	-8.8	13.6	3.4	0.7	-3.5	0.6	1.1	1.4	1.7	2.8
증권	-13.0	12.8	-1.7	-3.0	-4.4	1.1	0.2	3.6	4.2	4.1
보험	-11.7	-4.6	-4.2	1.6	-3.9	4.2	4.4	6.2	6.1	6.6
소프트웨어	-13.9	4.6	-1.5	-2.4	3.6	-0.3	0.1	-0.2	0.1	0.3
IT하드웨어	-13.6	-0.6	-16.1	-14.7	-0.3	8.9	8.0	10.2	10.6	10.5
반도체	-3.8	-8.8	-8.9	-12.6	-4.0	10.5	13.4	13.5	12.7	8.2
IT가전	-16.3	1.6	-6.5	-2.0	-3.0	1.4	0.1	8.6	7.5	10.1
디스플레이	-14.4	0.5	-0.4	-4.5	-4.3	-7.5	-5.7	-6.3	-2.2	-10.5
통신	-3.6	-1.5	2.6	-0.9	7.1	0.6	0.6	1.0	1.5	2.4
유틸리티	-5.7	3.8	-3.9	-5.3	5.1	0.6	0.6	1.0	1.5	2.4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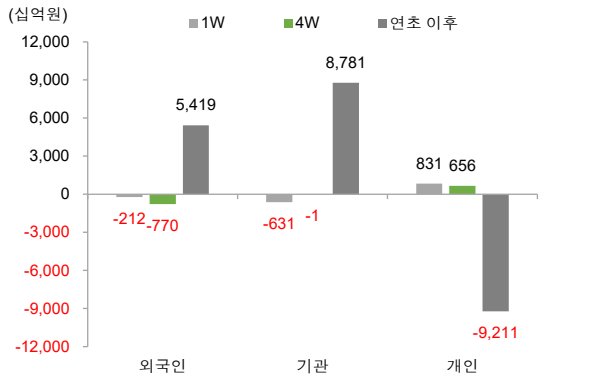
지난 한 주간 외국인은 KOSPI는 순매수했으나 KOSDAQ은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은행, 건강관리, 증권, 화장품/의류를 중심으로 순매수가 유입되었다. 특히 주간 반도체 순매수액이 1.6조원에 달한다는 것은 지난주 KOSPI 레벨이 향후의 지지선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기관은 KOSPI와 KOSDAQ을 모두 순매도 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 통신, 소프트웨어, 조선, 건설/건축을 순매수했으며 반도체, 증권, 은행, 자동차, 화장품/의류를 순매도했다.

도표 10. KOSPI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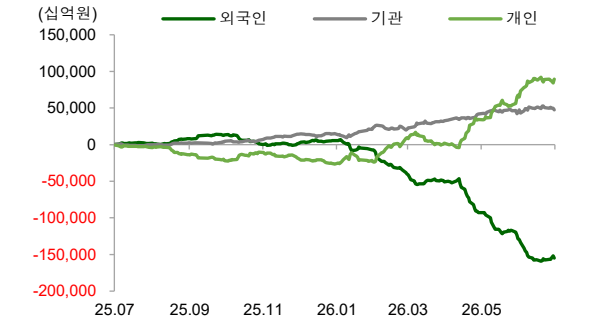
주) 2026.07.24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1. KOSDAQ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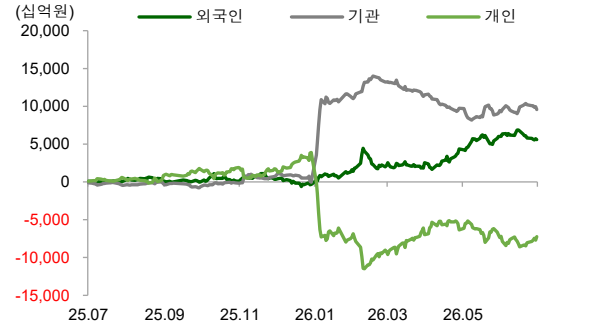
주) 2026.07.24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2. KOSPI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추이



주) 2026.07.24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3. KOSDAQ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추이



주) 2026.07.24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4. 주간 외국인 순매수/순매도 상위 업종

	업종	순매수/매도 대금(십억원)
순매수 TOP5	반도체	1,624.0
	은행	199.7
	건강관리	195.4
	증권	137.5
	화장품,의류	117.1
순매도 TOP5	통신	-273.3
	기계	-195.4
	IT하드웨어	-190.1
	조선	-118.8
	화학	-65.1

주) 2026.07.24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5. 주간 기관 순매수/순매도 상위 업종

	업종	순매수/매도 대금(십억원)
순매수 TOP5	에너지	540.1
	통신	283.2
	소프트웨어	250.7
	조선	164.7
	건설,건축	128.0
순매도 TOP5	반도체	-4,453.6
	증권	-143.1
	은행	-119.7
	자동차	-81.3
	화장품,의류	-80.0

주) 2026.07.24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이벤트 캘린더

월	화	수	목	금
6/29	6/30 미 5월 JOLTS 보고서 미 6월 CB 소비자기대지수 NKE	7/1 미 6월 ADP 비농업 고용 한 6월 수출입동향	7/2 미 6월 고용보고서 미 6월 실업률	7/3
7/6 미 6월 ISM서비스 지수	7/7 삼성전자 잠정실적	7/8 미 6월 FOMC의사록	7/9 한 옵션 만기일 PEP	7/10 SK하이닉스 ADR 상장 DAL
7/13	7/14 미 6월 CPI JPM, BAC, GS, WFC, C	7/15 미 6월 PPI ASML, JNJ, MS, UAL	7/16 한국은행 금통위 미 6월 소매판매 UNH, GE, NFLX, STX, ISRG, BX	7/17 미 미시간대 소비자지수
7/20	7/21 SCHW, BLK, DHR, NOC, GM, DHI	7/22 ECB 통화정책회의(~7/23) LG디스플레이 TSLA, GEV, TXN, IBM, PM	7/23 삼성바이오로직스 OCI홀딩스, KB금융, 신한지주, NH투자증권 INTC, MA, KLAC	7/24 삼성에피스홀딩스 현대모비스, 하나금융지주 두산로보틱스 XOM, CVX, AXP, VZ
7/27 **LG이노텍, ISC, 기업은행, IM금융지주, 두산**	**7/28** **미 연준 FOMC(~7/29)** **미 7월 CB 소비자기대지수** **BNK금융지주, 한미약품** **GOOG, MSFT, V, KO, RTX, LMT**	**7/29** **SK하이닉스, 한화솔루션, 대웅제약, HK이노엔, LG생활건강** **META, ARM, PG, MCD, BA, NOW, F**	**7/30** **BOJ 금정위(~31일)** **BOE 통화정책회의** **미 6월 PCE** **미 2분기 GDP 속보치** **삼성전자, 삼성SDS, 삼성전기, LG전자, 키움증권, POSCO홀딩스** **AAPL, AMZN, AMGN, GILD, MO, BMY, HWM**	**7/31** **LG화학, LG씨엔에스**

주) 기업 실적 발표일은 추후 변동 가능, 각국 일정은 현지시간 기준
자료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Compliance Notice

이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조사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 할 수 없습니다.